

이슈 브리핑

❶ 이슈 요약

- ◆ GAC, 업계 최초로 60Ah급 자동차용 전고체 배터리 시범 생산라인 가동 개시 선언
- ◆ Changan, 로봇 자회사를 설립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및 Embodied AI 사업 진출
- ◆ Li Auto, 차량 연결이 가능한 AI 스마트 안경을 출시하며 AI 하드웨어 생태계 확장 시도
- ◆ 美 행정부, 연방 프로젝트 'Genesis Mission' 출범으로 연구 자원 통합 및 과학기술 AI 활용 본격화
- ◆ 프랑스,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연장 및 지원 금액 상향 예정
- ◆ 베트남, '26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로드맵 발표·승인

◆ 중국 GAC, 자동차용 전고체 배터리 시범 생산라인 가동

- GAC(광저우자동차)는 '25.11월 광저우 모터쇼에서 전고체 배터리 시범 생산라인 가동을 발표하고, 중국 자동차 업계 최초로 60Ah급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 조건을 확보했다고 선언
- GAC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기술적 난제를 다수 해결하였으며, 고체 전해질의 이온전도도 개선, 셀 에너지 밀도 400Wh/kg 이상, 고온(200℃)·관통 테스트 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주장
- GAC는 '26년 중 전고체 배터리의 차량 탑재 테스트를 거친 후, '27~'30년 사이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

每日经济新闻('25.11.25.) <https://bit.ly/48uXr16> electrek('25.11.24.) <https://bit.ly/3XvzlhR>

◆ Changan, 자회사 설립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진출

- Changan(창안자동차)는 자본금 4.5억 위안(935억 원)*로 로봇 자회사 'Changan Tianshu Intelligent Robotics Technology'를 설립
- * 창안자동차는 2.25억 위안(약 467억 원)을 단독 출자하여 지분 50%를 확보
- 신설 법인은 휴머노이드, 산업용·서비스 로봇 및 Embodied AI 개발을 추진하며, '28년 휴머노이드, '30년 가정용 서비스 로봇 출시가 목표
- 한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(NDRC)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150개에 달하고 초기 단계 기업이 많아 중복 투자와 시장 과열이 우려됨을 언급

科技日报('25.11.29.) <https://bit.ly/4iCIm2g>

SCMP('25.12.1.) <https://bit.ly/49MZwbb>

◆ Li Auto, 차량 연결 가능한 AI 스마트 안경 출시

- 완성차 기업 Li Auto(리오토)는 AI 스마트 안경 'Livis'를 1,999위안(약 42만원)에 출시하며 웨어러블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
- Livis는 Li Auto 차량과 연계되어 음성 비서를 통한 차량 기능 제어*가 가능하며 차량 사용 경험을 개선한다는 것이 당사 발표
- * 실내 온도 및 음량 조절,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열림, 시트 열선 활성화 등
- Li Auto는 향후 디스플레이 탑재형,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독립형 안경 등 라인업을 넓혀 AI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계획임을 언급

Yicai('25.12.4.) <https://bit.ly/4pNoGuW>

Gasgoo('25.12.4) <https://bit.ly/4oJSeZG>

◆ 美 트럼프 행정부, 초대형 AI 국가 프로젝트 공식 출범

- 미국 행정부는 11월 24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AI 기반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 'Genesis Mission'을 출범
- 에너지부(DOE) 주도로 국립연구소 등의 과학 데이터셋, 컴퓨팅 자원, 실험 시설을 연계하고, 통합된 역량을 첨단 제조, 생명공학, 핵심 광물·소재 등을 포함한 과학·공학 발전에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
- 한편 DOE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10년 내 미국 연구와 혁신의 생산성·영향력을 두 배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

Whitehouse('25.12.24) <https://bit.ly/3Y8wgEs> Reuter('25.11.25.) <https://bit.ly/43ZCA4Q>

◆ 프랑스, '26년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연장

-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정책 안정성 유지를 위해 현행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'26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수준을 강화
- 환경 점수 기준을 충족한 4.7만 유로(약 8천만원) 미만의 차량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되며, 금액은 에너지절약인증서(CEE)* 시장 가격에 연동
- * 프랑스 정부는 '25.8월부터 에너지 공급업체가 의무 감축 이행을 위해 CEE를 구매함으로써 마련된 기금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 중
- 보조금은 구매자 소득에 따라 최대 4.2천 → 5.7천 유로(약 850만원)로 상향되며, EU 생산 배터리 탑재 시 최대 2천 유로(약 299만원)가 추가

FranceGov('25.11.26.) <https://bit.ly/4pb3FDl> Reuter('25.12.1.) <https://bit.ly/4pasVAF>

◆ 베트남, '26년부터 내연기관차 배출가스 기준 전면 강화 시행

- 베트남 정부는 내연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국가 로드맵 및 관련 규정을 승인하고, 강화된 규정을 '26.3월부터 시행할 예정
- '99년 이전 생산 차량(Euro-1급)부터 '22년 이후 차량(Euro-4급)까지 연식에 따라 기준을 부여하고, 향후 Euro-5급으로 규제 강화 추진
- 하노이·호치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강화된 기준을 조기 적용하여, '29년부터는 모든 차량에 대해 최소 Euro-2급 기준 충족을 의무화

VietnamGov('25.11.28.) <https://bit.ly/3MdIGZm> TIN TUC('25.11.29.) <https://bit.ly/3XyF6va>